조건 도입을 하면 나중에 다른 품종으로 다시 갱신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감류 품종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그 품종 고유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소비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즉 어떤 만감류 품종을 도입해도 그 품종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은 차가울 것이다.

또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는 품종을 육성한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를 위주로 품종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승산이예감(勝山伊予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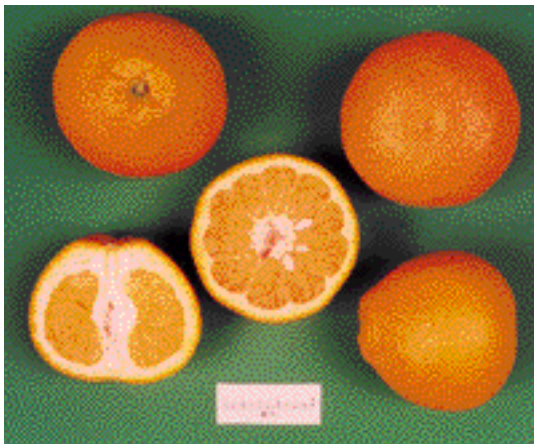
▲ 승산이예감

1. 육성경위

일본의 송산시(松山市 [illegible]口光雄氏)에서 1974년에 보통온주를 중간대목으로 하여 궁내이예감을 고접하였다. 1976년에 그 중 한가지에 대과이며 착색이 빠르고 과형이 좋고 과실표면이 매끈한 과실이 착과된 것을 발견, 그 후 관찰을 계속하여 1980년에 탱자대목에 아접을 시행, 묘목을 양성함과 동시에 1982년부터 에히매(愛媛)과수시험장에 특성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가지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1986년 11월에 「勝山伊予柑」으로 품종등록하였다.

2. 주요특성

나무 승산이예감의 나무특성은 궁내이예감(宮內伊予柑)과 거의 마찬가지로 결



▲ 승산이예감의 과실

실기까지의 유목 및 고접수의 생육은 양호하다. 결과하기 시작하면 나무 모습은 벌어진 모양(개장성)으로 되고 가지와 잎의 형질은 승산이예감과 궁내이예감의 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아 과실이 결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품종을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렵다. 궁내이예감과 마찬가지로 결실성이 양호하고 아주 풍산성인 반면 수세가 약해지기 쉽다.

과실 승산이예감의 과실은 궁내이예감보다도 대과 비율이 많고 이 경향은 특히 수세가 좋은 어린나무와 고접 후 결실하기 시작한 나무에서 현저하다. 과형은 둥글고 납작한 형으로 과실 크기가 고르다. 궁내이예감에 자주 보이는 열매 꼭지가 튀어나오는 증상의(요고과) 발생은 상당히 적고 착색 진행도 궁내이예감보다 5~7일 정도 빠르지만 착색 후 황색의 짙음 정도는 양쪽이 동등하다.

과실표면은 승산이예감이 궁내이예감보다 매끄럽다. 대곡이예감 정도는 아니지만 7~8월의 유과시기에 있어서도 궁내이예감과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될 정도로 차이가 있다. 과실의 유포밀도는 궁내이예감보다는 약간 성기다. 박피성(껍질 벗김)은 중간정도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손으로 벗길 수 있다. 수확 직후는 과피가 단단하지만 예조 효과로 과피가 유연하게 되면 벗기기 쉽게 된다. 껍질을 벗길때의 향기는 궁내이예감과 마찬가지나 함핵수(종자가 들어있는 수)가 적고 무핵과 비율도 높다. 과실품질에 있어서는 궁내이예감보다도 감산이 빠르고 약간 담백한 맛이 있지만 연말부터 출하가 가능하다.

3. 재배상의 유의점

재배적지에 있어서는 궁내이예감 재배지역에서도 고품질 과실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 바람직하며 재배조건이 나쁜 지역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착색과 감산의 진행이 늦어지고 기대한 만큼의 품질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출하 적기의 폭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궁내이예감보다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승산이예감은 대과일수록 담백화 현상 발생이 쉽기 때문에 장기 저장에는 알맞지 않으며 1월 하순이 지나면 식미면에서도 궁내이예감 쪽이 더 우수해 간다. 그리고 본 품종은 상당히 풍산성이기 때문에 접목후 2~3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과다 착과하기 시작하므로 열매솎기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세가 금방 쇠약해지고 잎도 아주 소형화되어 간다.

이예감 종류는 종전에 비료를 많이 하는게 좋다고 이야기 되어져 많은 수확을 위해 시비량을 많게 하여 왔으나, 조사결과 오히려 비료를 많이 한 감귤원에서는 농도 장해에 의한 뿌리 썩음이 많이 발생하여 생산이 불안정하게 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내한성에 있어서는 약간 약하기 때문에 냉기가 정체하는 곳에서는 재배하지 않도록 한다.